

부산광역시 학생 감염병 예방 소식지

2019년

04

가정통신문

수두, 유행성이하선염 증가 시기입니다.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!



수두



유행성이하선염

- 증 상** · 미열 → 물집(수포)이 머리, 몸통, 사지로 발생 → 딱지가 생기며 회복
- 전파경로** · 호흡기분비물에 의한 전파
·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
· 수포성 병변이 있는 환자와 직접접촉

- 증 상** · 발열, 두통, 근육통, 구토 등이 1-2일간 나타남
· 귀밑 침샘 부위의 붓기가 2일 이상 지속
- 전파경로** ·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(비말)로 전파

예방수칙

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

- *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
- *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
② 환경을 청결히 하기

- * 환자의 손이 닿는 손잡이, 장난감 등 소독
- * 개인용 식기 사용 등



③ 전파기간 동안 등원, 등교하지 않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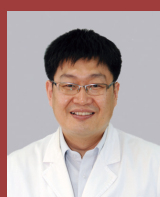
- * 전파기간 (수두) 모든 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(유행성이하선염) 귀밑 침샘이 붓기 시작한 날부터 5일까지

④ 예방접종 받기

- * 예방접종 여부 확인
- * 미접종 시 만 12세 이하의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 가능



전문가가 알려주는 예방법



조봉수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 / 의사
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위원

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4월부터 6월, 10월부터 이듬해 1월에 주로 발생합니다.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봄에는 집단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고 집단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수두는 잘 회복되지만 아이가 발진부위를 긁으면서 그 부위가 감염되어 흉터가 남을 수 있어 손톱을 짧게 깎아주거나 항히스타민 로션을 발라주는 등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유행성이하선염은 증상이 시작

되고 1-3일경에 귀밑 침샘 부위가 가장 많이 붓고, 3-7일 이내에 가라앉습니다.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(올바른 손 씻기, 기침예절 등)을 잘 지키고 아울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전파방지를 위해 수두는 물집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, 유행성이하선염은 침샘이 붓기 시작한 후 5일까지 등원,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.